

Atmosphere II.

존중과 배려함없이 추진된 변화는, 아무리 옳은 변화여도 결국 더 큰 갈등을 만들어낸다.

[빌립보서 2:3-4]

3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4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1. 하나님의 임재

엣모스피어는 성도들로부터 만들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공기'를 말한다. '영적공기'라 하면 추상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다. 임재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은 솔로몬 때에 나타난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인간의 차원에서 직접 경험한 놀라운 사건이다.

[열왕기상 8:11]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성전을 가득 채워서, 구름이 자욱하였으므로, 제사장들은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

말씀을 보니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고 기록한다. 제사장들은 그 영광의 임재에 압도되어, 서서 일을 볼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도들이 알 수 있도록 나타난 것이 바로 '임재'이다. 영광이란 무엇인가? 모든 것의 완성이다. 모든 일이나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최고점이 바로 영광의 상태이다. 영광보다 더 높은 상태는 없다.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시다.

예배란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압도되어 하나님을 송축하는 일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제사장들이 실제로 경험했다는 것이다. '영광'은 원어로 '카보드'를 말한다. 뜻은 '무거움'이다. '무겁다'라는 의미는 '중요하다'는 것이다. 존중받을 만큼 소중하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깃털처럼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다. 중요한 권위가 있는 사람일수록 주변으로부터 존중을 받는다. 대통령을 생각해 보라. 대통령의 존재 자체를 함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카보드(영광)'을 통해 보여주신 임재 앞에서, 제사장들은 서있기가 버거울 정도로 하나님의 존재를 실제적 무게감으로 느꼈다.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로 무겁게 경험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존재안에 있는 '존중됨'을 경험했을 것이다.

2. 존중의 문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삶의 태도는 '존중'이다. '존중'이란 가치를 아는 것이다. 함부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이에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의 눈과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이다.

[사무엘상 16: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사람은 외모로 가치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으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하신다는 것이다. 이 말씀 한 구절이, 사람을 기능과 능력으로만 평가하는 세상의 엣모스피어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마음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은 썩어질 것(외모)으로 가치를 평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속사람의 중심으로 가치를 평가하신다. 세상은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의 '존중됨'을 결정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마음의 중심으로 '존중됨'을 결정하신다. 아무리 세상에서 능력있고, 화려하고, 권위가 무게감으로 이 세상을 장악해도, 하나님에게는 '깃털'처럼 가벼운 일이다. 깃털처럼 가벼운 존재들은 바람이 불면 흩날리게 되어있다. 깃털처럼 가벼운 능력은 언제나 거품이 나타나게 되어있다.

3. 하나님의 임재를 방해하는 일들 - '변화되지 않는 자기'

(1) 신앙은 성장이다.

신앙은 성장과 같다.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크레센도이며, 증가이며, 발전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발전시키며, 번성시키며, 충만하게 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이것이 '영의 속성'이다. 이러한 영적존재가 만들어내는 공기는 언제나 힘이 있다. 소망이 있다. 부유함과 행복함이 있다.

(2) 에덴의 환경

인간을 창조하신 후, 하나님은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다. 인간에게 가장 적합한 환경이 바로 '에덴'이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다. 인간에게 주어진 땅을 다스리는 하늘의 권위는, 에덴이라는 환경속에서 일어났다. 모든 창조물들은 조화를 이루었고 충만했다. 인간의 비극은, 죄로 인하여 에덴이라는 환경에서 추방을 당한 후부터 생겨났다. 그 땅은 인간에게 결코 좋은 것을 주지 않았다. 스스로 땀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을수 없었다. 인간의 존재의미는 '생존'을 위해, 죽지않기 위해 사는 삶이었다. 에덴처럼 하나님의 뜻으로 땅을 번성, 충만, 생육하도록 하는 일을 할 수가 없었다.

이 땅의 공기는 '경쟁' 이었다. 경쟁이란 내가 살기위해 남을 죽여야 하는 구조를 말한다. 오직 '나' 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런 '나'는 결국 이 땅을 노아의 때와 같이 바벨론으로, 소돔과 고모라로, 타락하게 했다. 변화되지 않은 '나'가 만들어낸 이 땅의 공기는 파멸, 분열, 아픔, 타락이었으며 그 결과는 심판이었다. 에덴은 하나님의 임재안에 있었던 '온전한 나'가 있었다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변화되지 않는 나'가 존재할 뿐이다.

(3) 더 높은 차원으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요소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이유는, 이 땅에 에덴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엣모스피어'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타락한 땅을 생명의 땅으로 변화시키라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화의 주체가 되는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야 한다. 변화에 대한 좋은 예가 바로 '로켓'이다.

우주로 쏘아진 로켓은 몇 단계의 분리과정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 로켓 발사대에서 발사된 로켓은 강력한 추진력의 엔진을 필요로 한다. 1단계의 추진력을 내는 로켓은 규모가 크다. 중력을 이길만한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단계 로켓은 강력한 추진엔진을 통해 어느정도 로켓을 궤도에 올린 후 분리된다. 만약 어느정도의 고도에 왔음에도 1단계의 로켓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그보다 작은 추진력을 지닌 로켓으로 더 높은 고도에 올라갈 수가 없다. 연료를 다 소비한 1단계 추진로켓은 그 때부터 추진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추진력을 지닌 2단계 로켓의 발목을 붙잡게 된다. 더 높은 고도로 상승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2단계 추진로켓의 모든 에너지를, 1단계 로켓을 끌고 올라가는데 사용하게 된다. 이런 로켓은 결국 높은 고도로 올라가지 못한다. 실패이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이다. 더 높은 차원의 영적공기를 마시기 위해 발사된 영혼의 로켓은, 과감하게 1단계 로켓의 분리과정을 거쳐야 한다. 1단계 로켓이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영혼의 로켓은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분리되지 않은 1단계 로켓은 무엇인가? 변화되지 않은 '옛 자아'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인도하는 단계에서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은 땅의 에너지를 쓰는 '옛 자아'이다.

(4) 변화에는 언제나 과감한 결단력이 필요하다.

1단계 로켓을 분리해내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다. 결단과 결정이 없는 곳에서 변화는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주목해야 할 일이 있다. 이러한 변화와 결단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모든 것이 '존중과 배려의 공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변화되지 않는 '나'는 존중과 배려의 공간에서 처리가 되어야 한다.

존중과 배려의 문화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결단은, 고린도교회처럼 결국 나만이 옳다고 여기는 분리를 가져올 뿐이다.

(5) 존중과 배려의 공간

대표적인 예가 모세이다. 모세는 엄청난 1단계의 추진로켓으로 광야를 통과해 달려왔다.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옛모스피어가 있는 곳은, 다음단계의 추진력이 필요하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세웠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마음껏 나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사라졌다. 마찬가지로이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싶은가? 내 마음안에 있는 옛 땅을 기경해야 한다. 그리고 과감하게 새 엔진의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 새로운 결단력이 필요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존중의 문화 안에서 결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존중이란 배려의 문화이다. 배려란 당연하다고 여지지 않는 마음이다. 1단계 로켓은 2단계 로켓을 인정해주고, 격려하고, 박수 쳐주는 성숙함이 있어야 한다. 2단계 로켓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하거나, 당위성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1단계 로켓에 대한 깊은 배려의 마음과 감사의 마음이 존중의 문화이다.

(6) 예수님이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의 문화 안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처리되었다.

자기만을 주장하는 문화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가 아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첫 번째 창조에 대한 존중과 배려이다. 두 번째 아담의 새 추진력은, 첫 번째 아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아야 한다

존중과 배려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는 단계가 아니다. 진실한 성장은 존중과 감사의 바탕위에서 새롭게 일어난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미워하셨지만 인간 자체를 존중해 주셨다. 예수님은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다. 진짜 능력은 보여지는 기사와 이적이 아니다. 바로 예수님 자체에 있는 '영적 옛모스피어' 에 있는 것이다.

(7) 성도들이 일으켜야 할 옛모스피어

영적인 거품이 빠져야 한다. 타인을 향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환경에서 일어난 영적 거품들이 제거되어야 한다. 이것이 변화되지 않는 '나' 를 숨겼다. 마치 내가 변화된 것처럼, 성령충만한 것처럼 착각하게 했다. 결국 거품이 빠지니 변화되지 않는 초라한 '나' 만이 남게될 뿐이다. 영적거품을 만들어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된다.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막는 옛 자아들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존중과 배려의 문화 속에서 변화되어지는 것! 이 제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공기를 만들어내야 한다.

나를 희생시켜 내 이웃의 비전과 행복을 이루어 내는, 존중과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다니엘 보다 다니엘의 세 친구를 키워내는 문화, 다윗보다 요나단을, 바울보다 바나바를 키워내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말투, 행동 하나 하나가 변화되어야 한다. 변화된 존재가 결국 새로운 차원의 옛모스피어를 만들어 낼 것이다.